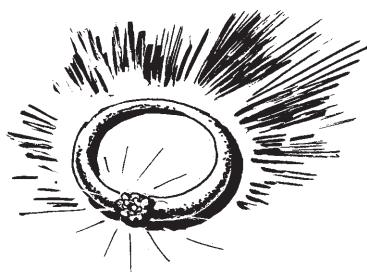


단편소설

약혼반지



정 학 봉

려객기는 어느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공을 날고있었다. 비행기안에는 옷차림과 생김새, 피부색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이한 모양새로 앉아있었다. 그들속에는 회색양복차림에 은테안경을 낀 백발의 한 녀인도 있었다. 걸보기에 일흔쯤 나보였으나 실은 여든을 넘긴 로인이었다. 흘러간 인생의 년륜인듯 녀인의 얼굴에 무수히 새겨진 잔주름만 아니라면 사람들은 그가 지냈던 한창시절의 미모를 어렵지 않게 상상해볼수 있으리라.

이 녀인이 바로 50여년만에 조국방문의 길에 오른 캐나다교포인 신백화였다. 그는 퇴직전에 이 름있는 기자였다.

지금 그의 귀전에는 비행장까지 따라나와 자기를 배려해주던 《캐나다타임스》주필의 말이 아직도 맴돌고있었다.

《선생도 아다실이 최근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이 편이여 무너지고있는데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유일하게 붉은기를 날리고있습니다. 세상사람들은 그걸 알고싶어합니다.》

이것이 그의 공적인 방문목적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하나의 사적용무가 있었다.

《차를 드십시오.》

손님들사이를 오가며 음료를 권하던 안내원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도 잔을 내밀었다.

《고마워요.》

차잔을 받아들던 백화의 시선이 안내원의 손가락에 낀 반지에 가 멎었다.

《반지가 멋있군요. 아마 애인이 선물한게지요?》

《아이참.》

안내원은 수집음을 타며 친절하게 눈인사를 남기고는 다음좌석으로 옮겨갔다. 그의 뒤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백화의 얼굴에 차츰 쓸쓸한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호- 하고 저도 모르게 한숨

을 내쉬며 천천히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는 눈시울을 스프르 내리뒀었다. 그의 마음은 어느덧 사랑하던 사람에게서 약혼반지를 받아안고 취할듯 한 행복감에 사로잡히던 잊을수 없는 그날을 찾아가고있었다.

1

...온종일 쉬임없이 오가던 사람들의 발길도 뜬해진 북산공원의 정자나무아래에 학생복차림의 백화가 금방 피어나려는 꽃망울들을 쳐든 나리꽃화분을 품에 안고있었다. 곱게 가리마를 내고 단발을 한 윤기나는 머리칼이며 그린듯 선명한 눈섭아래 고운 반달눈, 깨알보다 작은 주근깨가 다문다문 박혀있는 오똑코와 앵두알같은 입술, 오동동한 볼에 보르르한 숨털이 덮인 처녀의 얼굴은 그가 안고있는 나리꽃망울처럼 애되고 생신했다. 그의 얼굴엔 복잡다단한 인생사와 세상물정에 대해 아직은 다 모르는 그 나이또래 처녀들의 순진함이 려력히 어려있었다.

서산마루에 걸터앉은 저녁해가 처녀를 바라보며 누구를 기다리고있는가고 묻고있는것만 같았다. 그는 지금 애인인 준철을 기다리고있었다.

그가 준철을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온 길림장안을 들었다놓은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이 절정에 이르렀던 어느날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거리를 휩쓸며 굽이쳐가는 시위대렬을 바라보던 백화는 경찰들과 학생들이 란투를 벌리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그 와중에 말려들었다가 그만 총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었다. 그때 실신한 백화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 자기의 피를 뽑아주고 주머니를 털어 치료비까지 보태준 생명의 은인이 바로 제4중학교 학생인 김준철이었다.

준철은 백화의 부모들이 쥐어주는 사례비를 완강히 거절했다. 비록 어머니는 일찍 여의었지만 아버지가 정미소를 경영하고있어 학비걱정은 없다면 다른 도움을 청했다. 매일 한두시간만이라도 백화에게서 학습방조를 받고싶다는 것이었다. 백화의 부모들은 쾌히 승낙했다. 장소는 북산공원의 정자나무아래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학습방조는 어떤 날에는 어두워야 끝나곤 했다. 백화의 부모들은 때로 저녁늦게야 집으로 들어오는 딸을 별로 신칙하지 않았다. 준철의 준수한 용모와 가정적환경 등이 자기들이 구상하던 딸의 배우자와 너무도 비슷했기때문이었다.

어느날 준철은 공원에 피어난 흰 나리꽃 한송이를 꺾어 들고 와서 백화에게 주며 말했다.

《난 이 흰 나리꽃을 보면 꼭 백화를 보는것만 같소. 그래서 난 이 꽃이 별스레 더 곱구만.》

《어마나.》

백화는 잘 익은 도마도처럼 빨개진 얼굴을 숙였다.

백화는 준철이 좋아하는 나리꽃을 제 손으로 가꾸고싶었다. 아니, 자기 자신이 나리꽃으로 되고싶었다. 그래서 뿌리를 얻어다 화분에 심고 마음속에서 샘솟는 정을 함뱍 쏟아부었다. 그 정이 자양분이 돼서인지 나리꽃은 줄기와 아지를 뻗치며 싱싱하게 자랐다.

그들이 중학교를 졸업할무렵 백화의 부모들은 준철의 집까지 찾아가 자식들 문제를 락착지었다. 겹하여 약혼식날자도 정해놓았다. 그래서인지 그날 아침 백화가 가꾸던 나리꽃이 금시 피어날듯 꽃망울을 펼치기 시작하는것이 아닌가. 백화는 바야흐로 활짝 피어날 이 사랑의 꽃을 애인에게 보여주고 싶어 화분을 안고 정자나무아래로 나왔던 것이었다.

백화는 눈앞에 펼쳐진 저녁노을을 환희에 넘쳐 바라보았다. 처녀에겐 그 노을이 마치도 자기를 위해 펼쳐진 행복의 운무처럼 보였다. 금시라도 준철이 달려나와 자기 손을 뜨겁게 잡을것만 같았다.

《백화!》

등뒤에서 울린 준철의 목소리에 처녀는 깜짝 놀랐다. 생각지 않던 방향에서 불쑥 나타난 애인을 동그란 눈으로 올려다보던 백화는 인츰 얼굴에 고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바쁘세요?》

《오, 동무들을 좀 만나고 오느라고. 백화, 우리 동만으로 가지요.》

백화의 얼굴에 피어났던 웃음이 사그라졌다.

《그때 길림에서 청년학생들의 시위투쟁을 승리로 이끄신분이 안도에서 반일민민유격대를 무으셨다오. 지금 동만일대에 유격구들이 창설되었소. 반일성전은 우리 청년들을 부르르고있소.》

뜻박이었다. 그럼 사랑은? 결혼은?

《왜 말이 없소?》

백화는 고개를 외로 틀고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부모님들의 동의도 없이 우리끼리 어떻게... 약혼식날자도 당장인데...》

《백화, 난 결혼은 차후에 볼 문제라고 생각하오. 지금 뜻있는 청년들은 모두가 나라찾는 싸움에 떨쳐나서고있는데 우리가 자기 행복에만 도취되어 안온한 가정생활에만 파묻힌다면 어떻게 조선의 열혈청년이라고 말할수 있겠소? 물론 우리가 결혼하면 행복할거요. 하지만 지금 나라가 없고 돈이 없는탓에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랑할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소. 일규라는 내 친구는 돈이 없어 지주집에 끌려간 약혼녀를 몇년째 찾아오지 못하고있소. 그래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몹쓸 세상을 뒤집어엎구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랑할수 있는 그런 사회를 세워야 할 우리들의 의무를 과연 외면할수 있겠는가 말이요? 이제 유격구에 들어가 왜놈들과 싸우느라하면 조국은 해방될게구 그때 가서 우리 보란듯이 잔치를 하잔 말이요, 혁명두 하구 사랑두 하구. 이게 얼마나 좋아. 어때, 가지?》

준철은 백화의 어깨를 잡아흔들며 다우쳐물었다.

백화는 애인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흡사 자기가 이미 발견해놓았던 별이 범상치 않은 별이라는것을 뒤늦게야 깨닫고 그것을 새로운 기쁨속에 다시 바라보는 천문학자의 눈빛과도 같은 것이었다.

《어서 대답해. 함께 가지?》

준철이 대답을 재촉했다. 이 시각 백화는 자기와 준철의 심장이 이미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피줄 같은것으로 이어져 하나로 고통치고있음을 절감하고있었다.

《가겠어요. 준철씨와 함께라면 그 어디든 따라가겠어요.》

《백화!》

《준철씨!》

두사람의 길다란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졌다. 서산에 걸터앉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저녁해가 축복의 빛을 아낌없이 뿌려주었다. 백화는 나리꽃 화분을 준철에게 안겨주었다.

《오늘 아침 꽃망울을 터쳤어요. 이제 활짝 피어날거예요.》

준철은 꽃망울을 살뜰히 어루만지며 말했다.

《백화, 우리 이 꽃을 유격구에 안고가서 아름답게 피워보자구. 아참...》

화분을 내려놓은 준철은 품속에서 하얀 손수건에 싼것을 꺼내어 펼쳐들었다. 새노란 금반지가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다.

《약혼식날에 주려던건데...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소.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물로 남긴거요. 손을 이리 주오.》

《아이참...》

백화는 수집음을 머금은 얼굴을 숙이며 고운 손을 준철에게 맡겨버렸다.

다음날 백화는 준철과 함께 부모들에게 자기들의 생각을 터놓았다. 준철의 철석같은 맹세와 딸의 결심을 들은 백화의 부모들은 한식경이나 걸리는 심중한 논의 끝에 그들이 함께 유격구로 가는데 대해 끝내 동의하고야말았다. 며칠후 려장을 갖춘 백화는 준철을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이 찾아가는 곳은 갓 일떠서기 시작한 우복동유격구였다. 이곳에서 준철은 유격대에 입대했고 백화는 구쏘베트에서 서기로 일하게 되었다. 숙소는 혼자 사는 어느 인정많은 할머니네 집에 정하였다.

백화는 구쏘베트가 자리잡은 귀틀집 처마아래 가지고은 나리꽃뿌리를 정성다해 심었다. 그리고는 지붕우에서 펴터리는 붉은 기발을 기대와 선망이 어린 눈길로 쳐다보았다. 백화에게는 그 붉은 기발이 마치 자기의 나리꽃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여겨졌다.

유격구는 《사회주의혁명》으로 들끓고있었다. 지주들과 부농들이 청산되고 소나 농기구, 썩작이나 숟가락, 저가락, 아낙네들의 바늘이나 빨래방치까지도 보풀이 일대로 인 쏘베트회장의 장부책에 올랐다가 매 세대의 인원수에 맞게 다시 고루 분배되었다. 남너로소 할것없이 모두 공동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했고 사람들은 나이와 촌수를 불문하고 《동지》, 《동무》라고 불리워야 하였다. 남너의 교제는 엄격히 금지되고 심한 경우에는 반혁명적행위로까지 락인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백화로 하여금 준철과 공개적으로 만나는데를 삼가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래서 쏘베트에서 유격대에 무엇을 전달할 일이 생기면 자진해서 일어서군 했고 어떤 때에는 우정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준철이네 소대병실을 찾아가 그와 눈길을 맞추고 오군 했다. 하지만 그런 구실도 매일 생기는것이 아니어서 어떤 날에는 한번도 준철을 만나지 못하고 손에 긴 반지만 하염없이 내려다보며 애끓는 마음을 달래었다. 그러면 마치도 준철이와 얼굴을 마주한것만 같아 한결 위로가 되었다. 밤이면 밤대로 창가너머 유격대병실쪽을 바라보며 입속으로 조용히 하이네의 련정시를 읊군 하였다.

답답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그날 백화는 구쏘베트사무실에서 문서를 작성하고있었다. 그런데 밖에서 뚜거덕거리는 말발굽소리가 울리더니 이어 가죽잡바를 입은 사람이 쏘베트회장을 대동하고 들어섰다.

《그래, 현당의 방침은 제대로 집행되고있는가?》

《예, 그러저럭... 봉건이 심한 로인들이 좀 애를 먹이긴 하지만...》

《그럴수 있지, 혁명 그자체가 진보와 보수간의 첨예한 투쟁이니까. 이런 때일수록 쏘베트정권의 프로독재기능을 강화해야 하오.》

주먹까지 흔들며 혼시를 늘어놓던 《가죽잡바》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백화를 턱으로 가리키며 회장에게 물었다.

《이 동문 누구요?》

《저... 유격대원 김준철동무와 함께 길림에서 찾아온...》

쏘베트회장은 《가죽잡바》의 귀에 대고 무어라고 한참 중얼거렸다. 아마 백화의 출신이며 사회성분 등을 설명하는것 같았다. 회장의 입가에 한쪽귀를 바투 들이대고 백화를 아래우로 훑어보던 《가죽잡바》는 알만 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러니 동무가 애인을 따라 혁명을 하겠다고 찾아왔다는 그 동무로구만. 내 현당 조직부장이요. 반갑소.》 하더니 악수를 청했다.

백화가 외면하자 《가죽잡바》는 내밀었던 손을 승마복바지주머니에 찢러넣으며 감란인지 빈정거림인지 모를 사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플스포이의 장권소설 〈고난의 길〉에 나오는 까짜나 다샤와 같은 녀성이 여기에도 있구만. 여보 회장동무, 사랑의 힘이라게 세긴 세지? 자산계급의 부르조아녀성을 무산혁명에 뛰어들게 했으니 말이요, 하하.》

백화는 일종의 모욕감을 느끼며 화끈거리는 얼굴을 숙이고말았다.

《그래 지금 무엇을 하고있소?》

백화는 정리하고있던 문건을 내밀었다.

《헌납품목록이라?》

한참이나 간간스레 훑어본 문건을 책상에 내던진 《가죽잡바》는 백화의 손에서 반짝이는 금반지를 발견하자 갑자기 눈이 쾅- 해서 물었다.

《값이 나가는 반지구만. 애인의 선물이요?》

백화는 고개를 외로 틀고 금반지를 슬며시 가리웠다. 이러한 그의 태도에서 자기의 짐작이 옳았다는것을 느꼈는지 《가죽잡바》는 더 캐묻지 않고 또다시 엮어대는것이였다.

《난 불원천리하고 애인을 따라 예까지 온 동무의 그 심정을 리해하오. 나도 한뎀 서울바닥에서 리화전학생들의 선망의 눈길을 모으던 호남아였으니까. 세계혁명운동사엔 로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생을 바친 녀성혁명가들이 적지 않았소. 맑스의 딸 엔니라든가 로자 룩셈부르크라든가. 그들은 혁명을 위해 사랑도 가정도 재부도 다 바쳤소. 소유는 사상의 어머니이고 계급을 가르치는 중요한 척도요. 지금 갓 창설된 유격구는 기근에 처해있소. 그래서 구쏘베트에서는 모두에게 호소했소. 이 문건에도 기록되어있지만 한 동지의 안해는 자기의 머리태까지 잘라 바쳤소. 그래, 뭔가 생각되는게 없소?》

《가죽잡바》는 뒤집을 지고 가느스름하게 쪼프린 눈으로 고개를 숙이고 서있는 백화를 훑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눈길은 지금 자기와 준철의 아름다운 사랑의 상징인 약혼반지를 혁명의 제단에 바

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하지만 백화에게 있어서 이 금반지는 곧 사랑이었고 애인이었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었으며 둘도 없는 생활의 길동무였다.

(준철씨, 용서하세요.)

살점을 떼어내는 아픔을 느끼며 백화는 떨리는 손으로 금반지를 뽑아들었다. 이렇게 하는것이 《혁명》앞에 자신을 증명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떳떳하게 해주는것이라고 생각했다.

백화가 뽑아놓은 금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살펴보면 《가족잡매》는 《음- 진품은 진품이구만.》하며 그것을 모아들인 헌납품무지에 흠- 내던졌다. 포물선을 그으며 날아간 반지는 벽에 걸린 기발에 부딪혔다가 마루바닥에 툭떨어졌다. 백화는 원망의 눈물이 가랑가랑 고인 눈으로 쏘베트기발을 바라보았다. 한 처녀의 사랑의 정표를 흐물떡 삼켜버리고도 아무 일 없는듯 무표정하게 걸려있는 그 기발이 야속하기 그지없었다. 날이 어슬해지자 백화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준철이 근무를 서고있는데로 향했다.

뜻밖엔 나타난 그를 본 준철은 몹시 놀라며 연송 다우쳐물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나타났소? 무슨 일이 생겼소?》

백화는 준철에게 금반지를 《기증》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고나서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것 같아요.》

준철은 말이 없었다. 백화는 곁에 있는 풀잎을 드드득- 소리가 나게 뜯어내서는 토막토막 끊어버렸다. 그의 발치에 떨어진 풀잎들이 바람에 어지럽게 흩날렸다.

이때였다. 조용하던 숲속에서 갑자기 와슬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섯, 누구얏!》

준철은 황급히 일어나며 어깨에 매었던 총을 벗겨들고 소리쳤다. 대담대신 불쑥 나타난 사람은 준철의 중학동창이며 유격구로 올 때 함께 온 최일규라는 대원이었다.

《뭘하고있나? 적들이 달려들고있는데.》

《?!》

백화와 준철은 버쩍 머리를 들어 망원초경을 바라보았다. 적정을 알리는 수기신호가 안타깝게 계속되고있었다. 일규는 어깨에서 보총을 벗어들더니 주저없이 공중에 대고 쏘았다.

《땡!-》

이 총소리는 마치 백화에게 마른 날의 천둥소리처럼 들려왔다.

《빨리 1참호로 가라구.》

《알...알겠소.》

쫓기듯 사라지는 준철을 따라서던 일규는 어쩔바를 모르고 서있는 백화를 힐끔 돌아다보며 통명스럽게 말했다.

《거 좀 봐가며 찾아다니오. 여긴 전투근무장소

이지 공원이 아니란 말이요. 동무때문에 무슨 소문이 돌고있는지 알기나 하오? 내 참.》

일규는 이런 말을 내뱉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백화는 그만에야 후! 하고 흐느끼며 얼굴을 싸끈채 그 자리에 폴짝 주저앉았다.

이날 백화는 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유격대원들속에서 한쪽팔에 붕대를 감은 일규를 보았다. 백화의 마음속에는 마치도 자기때문에 그가 부상을 당한것만 같은 미안한 생각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그래서 다음날 사회라도 하고싶어 유격대병실을 찾아갔다.

보초병이 그를 멈춰세웠다. 회의중이여서 좀 기다리라는것이였다.

마당가에서 서성거리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책상을 팡 내려치는 소리가 문밖으로 새어나왔다. 이어 청높은 목소리가 울렸다.

《동무! 지금이 어느때라고 련애질인가? 우린 전쟁을 하고있단 말이요, 전쟁을! 그래 처녀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이 전쟁에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수 있는가? 우린 소부르조아계급출신인 동무의 혁명적각오에 대해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소.》

분명 현당 조직부장의 목소리였다. 자기때문에 준철이 비판을 받고있다는것을 직감한 백화는 마음이 졸아드는것 같아 한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다. 다른 사람들이 준철을 비판하는 소리가 문밖으로 줄줄이 새어나왔다. 그속에는 일규의 목소리도 있었다.

《우리는 준철동무의 혁명동지로서, 전우로서 이 동무의 라태하고 안일한 생활방식을 절대로 묵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습니다. 선택하시오, 준철동무. 혁명이나, 사랑이나? 어느쪽이요?》

백화는 입술을 피나게 깨물며 발길을 돌렸다. 준철을 다물아대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의 귀전에도사리고 계속 귀따갑게 울렸다.

맥없는 걸음으로 구쏘베트사무실 트랙으로 들어서던 백화는 뜻밖의 광경에 우뚝 멈추어섰다. 쏘베트회장이 나리꽃을 뿌리채 뽑아내고있었던것이였다.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한참동안 꽃포기들을 다 뽑아던지고 돌아선 회장은 백화의 원망어린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현당 조직부장동지가 다 치우라오. 프로독재기관에 이런 꽃밭을 만들어놓은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동무에겐 안됐지만 어찌겠소?》

그리고는 어디론가 바빠 사라져버렸다.

백화는 떨리는 손으로 불품없이 나딩구는 꽃포기들을 하나하나 주어들었다.

(여긴 네가 뿌리를 내릴만 한 곳이 못되는구나.)

저녁부터 백화는 자리에 누워버렸다. 다음날엔 주인집할머니가 준철이 처벌을 받았다는 기막힌 소식을 전해주었다. 백화는 비척거리며 자리에서 일

어났다. 자기라는 인간이 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치장스럽고 위험천만한 존재로 되고있는 여기에 더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치밀었던 것이다.

(가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이를 위해 가야 한다!)

준철을 만나보고 떠났으면 좋으련만 처벌을 받고 있는 그를 만날 수도 없겠거니와 다시 그를 찾아다니는 것과 같은 철없는 행동으로 애인을 비판무대에 세우고 싶지 않았다. 대신 편지 한 통을 썼다.

《준철씨, 저는 떠나가요. 전 지금껏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해왔어요. 그건 제가 준철씨를 진정으로 끝없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준철씨를 따라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혁명은 우리들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는 구만요. 난 혁명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인간성을 배제하는 것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준철씨, 우린 구태여 혁명에 나서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디 심사숙고해주세요. 그리고 결심이 서면 한시라도 빨리 저를 찾아와주세요. 전 언제까지나 당신만을 기다리겠어요. 떠나면서 백화.》

트렁크를 들고 문밖으로 나선 그는 마당에 서서 구썬베트지방우에서 필러거리는 기발을 한참이나 쏘아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웅했다.

(이 시각부터 나는 너에게 영원한 결별을 선언한다!)

백화는 주인집 할머니에게 편지를 부탁한 후 길을 떠났다. …

《손님여러분, 잠시 후에 비행기는 착륙하게 됩니다. 모두 안전편지를 착용해주시시오.》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안내원의 목소리에 백화는 쓸쓸한 추억에서 깨어났다.

2

크지 않은 건물앞에 승용차를 세우게 한 백화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펴보았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 십년이란 세월이 다섯번이나 흐르는 사이 자기가 《요미우리신봉》의 특파원으로 주재하던 이 소도시는 많이도 달라졌다. 조잡스럽던 옛 거리는 흔적조차 없어지고 층수가 그리 높지 않은 현대적인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는가 하면 마차들조차 여기기가 불편하던 좁은 도로는 보기만 해도 시원하게 트인 포장도로로 바뀌었다. 여기서 서북방향으로 좀 가느라면 조선주둔군 라남제19사단지휘부가 틀고있었던 경암동골짜기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 나지는데 그 옆에 나지막한 등성이 있었다. 그는 소나무가 우거진 그 등성을 기억하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 자기가 직접 준철의 시신을 묻었던 것이다. 옛련인의 묘소를 찾아보는 것이 이번 조국방문의 기본목적이었다. 그래서 조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도시를 찾는 것을 첫 방문일정으로 의뢰

했고 오늘은 만사를 제쳐놓고 평양에서 수백리 떨어진 여기로 온 것이었다.

《이제부터 걷어서 가겠으니 여기서 좀 기다려주세요.》

운전사에게 이렇게 부탁한 그는 포장도로를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옛련인의 묘소를 찾아가는 그의 마음은 지금 산에서 내려온 준철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도 가벼이 서점으로 다우쳐가던 그날의 포석우를 걷고 있었다.

…또각, 또각, 또각…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속으로 연회색의 투를 걸친 백화가 바빠 걸어가고 있었다. 처녀가 안고가는 화분우에서 금시라도 피어날 듯 고개를 쳐든 흰 나리꽃망울이 즐거운 발걸음에 맞춰 흔들거리고 있었다.

지금 백화는 자기가 부모들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현명한 처사였는가를 새삼스럽게 느끼며 걷고 있었다.

4년전, 반년만에 집으로 돌아온 딸을 앉혀놓고 부모들은 물었다.

《이젠 어쩔셈이냐?》

《기다리겠어요. 십년이고 이십년이고 기다릴테야요.》

《그래, 그게 사람의 도리지. 황차 그 사람이야 네 생명의 은인이구 이미 혼사를 약조한 사이가 아니냐. 그런 사람을 배반하면 천벌을 받는다. 기다리느라 하면 그네들이 하는 일도 무슨 꼴을 보겠지.》

그후 아버지의 권고대로 일본으로 간 백화는 와세다대학 문과에 입학하였다. 그는 자기의 미모를 탐내어 주변에서 맴도는 일본사내들을 경멸의 눈초리로 쫓아버리며 세방에서 순정의 나리꽃을 변함없이 가꾸었다.

졸업후 백화는 《요미우리신봉》기자가 되었다. 신문사에서는 그가 조선사람인 것을 고려하여 조선주둔군 라남제19사단이 있는 소도시에 특파원으로 파견하였다. 백화는 조선인기자로서 일본군을 종군하게 된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혹시 애인의 행적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한가닥 기대감때문에 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백화는 이 도시에서 취직후 첫 기사로 우북동유격구에 대한 인상담을 써냈다.

《나는 왜 붉은 기발과 결별했는가?》라는 표제 아래 유격구에서의 체험을 그대로 쓴 기사는 총독부의 이례적인 관심속에 일본과 조선의 권위있는 신문들에 대서특필로 게재되었다. 바로 그날 백화는 뜻밖에도 거리에서 최일규를 만나게 되었다.

이날 그는 첫 기사를 특종뉴스로 써낸 것을 축하하여 동석식사를 하자는 사단지휘부 장교들의 간청에 못이겨 그들과 함께 차를 타고 거리로 나왔다. 백화가 음식점앞에 들어서려는데 막별이군차림에 허술한 망태기를 진 웬 사나이가 눈이 화등잔만 해서 서 있었다.

그는 일규였다. 백화는 소스라치듯 놀랐다. 일규도 뜻밖의 상봉에 얼혼이 나간듯 한동안 아연해진 얼굴로 백화를 마주보기만 하는 것이었다. 뒤에서 오던 장교 하나가 마주선채 돌부처처럼 굳어진 그들의 거동이 이상했던지 백화에게 다가와 왜 그러는가고 물었다.

백화는 온몸이 긴장되는감을 느꼈다. 만일 자기가 여기서 한마디라도 실수하여 일규의 신분이 로출되면 그것으로 그는 마지막인 것이다. 일규도 이 불의적인 상봉의 위험성을 느꼈는지 비장한 눈빛으로 백화를 쏘아보며 저고리앞설에 손을 들이밀고 있었다. 그속에는 심중팔구 권총이 있을 것이다. 여차하면 피값이라도 할 최후의 결심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일규의 이러한 모습은 백화에게 런던의 정을 불러일으켰다. 이렇든저렇든 일규는 자기와 같은 조선사람이며 애인인 준철이와 함께 고생하는 사람이 아닌가.

백화는 자기가 해야 할바를 깨달았다.

《어마나— 이게 누구예요? 일규씨 아니예요? 그런데 왜 이런 행색으로 나타났어요? 중학시절엔 너 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던 대지주의 아드님이 이런 차림을 하니 몰라보겠군요, 호호호.》

일규의 손을 부여잡고 호들갑을 떠는 백화의 연기는 그야말로 세련된 것이었다. 일순 놀라는 듯 하던 일규는 백화가 일본군장교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감춰주기 위해 이런 연극을 논다는 것을 간파했는지 인츰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맞장구를 쳤다.

《아— 이거 누군가 했더니 백화씨구만. 일이 그렇게 됐소.》

그제서야 장교는 머리를 끄덕이며 먼저 들어가겠으니 친구를 만나고 천천히 따라들어오라면서 음식점안으로 들어갔다.

백화가 먼저 말을 건넸다.

《준철씨는 잘있는가요?》

《잘있소. 지금은 한계 분대를 책임진 분대장이요. 그런데 왜 내 정체를 발가놓지 않았소? 속에 맺힌게 많겠는데.》

《나도 조선사람이예요.》

《조선사람?! 그렇다면 이진 어떻게 보아야 하오?》

일규는 밀영에 가지고가려고 방금전에 산 신문을 내밀었다. 자기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훑어본 백화는 도교한 어조로 대꾸했다.

《난 진실을 썼을뿐이예요.》

《아니, 이진 진실이 아니요. 동무는 그때 좌경적인...》

《그만하세요! 난 당신들과 동무가 될수 없어요. 한가지만 부탁하자요. 준철씨에게 제가 기다린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강을 건느려면 나루터보다 교두로 빠지는게 안전할거예요. 그럼 안녕히.》

백화는 일규가 더 다른 말을 붙여볼새도 없이 간단히 목례를 하고는 외투자락을 획— 날리며 음식점안으로 들어갔다.

한달이 지났다. 오래간만에 거리에 나왔던 백화는 안경방 굵인돌이를 꺼어들다가 두루마기에 중절모를 쓴 수염이 허연 웬 로인과 부딪혔다.

《어이쿠!》

백화가 미안해하며 늙은이를 부축해주려는데 로인이 그의 손에 자그마한 쪽지 한장을 재빨리 쥐여주는 것이었다.

백화는 멀어져가는 로인을 의혹에 찬 눈길로 바라보며 쪽지를 펼쳐들었다.

《사랑하는 백화동무, 그간 잘있었소? 나는 지금 당신을 찾아 이 도시에 와있소. ...》

숨이 푹 멎는 것만 같았다. 쿵쿵거리는 심장의 박동이 느껴졌다. 두손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한동안 굳어졌던 백화는 황황히 편지를 다시 펼쳐들었다.

《한번 다진 사랑의 약속을 지켜 일구월십 나만을 기다려온 동무를 이제야 찾아온 이 못난 사나이를 용서해주오. 그간 여기에 자리를 잡느라고 오늘에야 소식을 전하오. 래일 망양서점에 와서 주인을 찾으면 우리의 상봉은 이루어질 것이요. 그때 만나 회포도 나누고 결혼식날자도 정합시다. 준철.》

왈칵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아, 오셨군요. 끝내 오셨군요.)

백화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길가던 사람들이 거리바닥에 주그리고앉아 흐느껴우는 처녀에게 의아한 눈길을 던지며 지나갔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했건만 백화에게는 함께 기뻐해줄 사람이 없었다. 나는듯이 속소로 달려간 그는 자기가 가꾸는 나리꽃화분을 붙들고 이렇게 속삭였다.

《나리꽃아, 그이가 오셨단다. 너는 다 보았지? 내가 그이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우린 결혼한단다. 나리꽃아, 어서 꽃망울을 터쳐주렴. 어서 빨리 곱게 피어나 우리를 축복해주렴.》

백화는 다가오는 래일의 상봉을 그려보며 장밤을 뜬눈으로 지새웠다. 이날따라 아침해는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는지...

서점이 바라보였다. 바로 저 집에서 준철이 자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있을 것이다. 걸음은 점점 빨라져 반달음이 되었다.

이때였다. 서점쪽에서 갑자기 자지러진 총소리가 울리더니 신사풍의 사나이가 권총을 쏘아대며 백화를 향해 마주 뛰어왔다. 그뒤로 한무리의 일본군병졸들이 우르르 쫓아오고있었다.

거리는 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이쪽으로 뛰어오던 사나이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내편다. 그 사나이를 눈여겨보던 백화는 《앗!》하고 외마디비명을 지르며 한손으로 입을 막고 우뚝 서버렸다. 사나이는 분명 일규였다.

불안감이 온몸에 엄습해왔다. 혹시 준철씨의 신상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았을까? 백화는 허둥지둥 서점으로 달려갔다.

유리창이 다 깨어져나간 출입문을 열어제끼고 그

가 서점안에 뛰어들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넘어진 서가, 발밑에 버적거리는 유리조각들과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책들, 그리고 피자옥...

《아니, 특파원이 어떻게?》

서가의 책들을 뒤지던 사단 정보과장이 백화가 여기에 나타난게 뜻밖이라는듯 두손을 벌려보이며 다가왔다.

《과장님, 서점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점주인? 아는 사이요?》

《어서 대답해주세요, 네? 과장님!》

손목을 붙잡고 다우쳐묻는 백화의 얼굴을 한참이나 마주보던 정보과장은 한숨을 푹 내쉬며 중얼거렸다.

《주인은... 살해됐소.》

《네?!》

백화는 온몸의 피가 깡그리 빠져나가는듯 한감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왜 그러오?》

백화는 정보과장의 부축을 받으며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다.

《그이가... 그이가... 어디 있어요?》

《저기 백포를 씌워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요.》

백화는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화들화들 떨리는 손으로 백포를 벗겼다. 피투성이가 된 준철의 얼굴과 가슴을 어루쓸던 백화는 말없이 누워있는 그의 시신우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펄펄 쏟았다.

《아—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상봉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가면 난... 난 어떻게 해요, 준철씨—》

온몸을 풀어헤치고 한참이나 목놓아울던 백화는 갑자기 머리를 쳐들며 솟구치듯 떨쳐일어나 곁에 나딩구는 보총을 거머잡았다.

《누가 봤어? 어느 놈이야. 나서라!》

누구도 나서는자가 없었다. 정보과장이 백화의 기색을 살피며 조심히 지켰었다.

《진정하오. 혁명을 배반하고 도주한자는 이렇게 처단한다는거요.》

몸이 우들우들 떨렸다. 백화의 눈앞에는 방금 총을 쏘며 달아나던 일규의 모습과 함께 이미 뇌리에 새겨졌던 그의 불미스러운 모습이 언뜻언뜻 떠올랐다.

유격대병실에서 준철을 라매하던 일규, 근무장소에까지 찾아다닌다고 자기에게 통을 먹이던 일규, 일전에 만났을 때 일본군장교들과 함께 있는 자기를 적의에 차서 바라보던 일규... 사건전말은 명백한 것이었다. 준철은 자기를 찾아왔을 것이며 일규는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 유격대에서 보낸 자객 일 것이다.

백화는 들었던 보총을 내던지며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부르짖었다.

《아, 사랑한게... 사랑한게 무슨 죄가 된다고... 아!》

소나무 우거진 등성이에 애인을 묻고온 그 저녁 백화의 방에 불쑥 나타난 정보과장이 《사랑》을 고백했다. 치밀어오르는 격분에 그자의 귀삼을 후려갈겨 쫓아버린 백화는 침대에 어푸러져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그인 나때문에 죽었어. 내가 그이를 죽였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피로와도 참아야 했을걸.)

백화는 잠을 이룰수 없어 바다가로 나왔다. 컴컴한 바다는 희끗희끗한 멀기를 일으키며 태질하고 있었다.

《나는 영원히 그대만을 사랑해요!》

썩악— 썩악— 세찬 파도소리는 백화의 웨침소리를 순간에 삼켜버렸다.

며칠후 여러 신문들에는 이 사건의 전말이 증인으로 나선 백화의 사진과 함께 크게 실렸다. 백화는 나리꽃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다, 준철이 살아 있을 때보다 더 극성스레... 그렇게 몇해가 흘렀다. 라남제19사단지회부마당에 사꾸라꽃잎이 무너지듯 떨어져 죽어자빠진 《대일본제국》을 조상하듯 하얗게 흘날리고 《조국해방 만세!》의 합성이 온 도시를 들었다놓던 그날 백화는 쫓겨가는 일본인들 틈에 끼여 배에 몸을 실었다. 일본군대의 종군기자였던 그는 이 도시에서 얼굴을 쳐들고 다닐 수 없었던 것이다.

인생의 표류가 시작되었다.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또 오스트랄리아로, 캐나다로 부평초마냥 떠다니는 그에겐 나리꽃이 인생의 길동무였다. 이 꽃은 목숨으로 자기를 사랑한 애인에게 바치는 그의 녀이였고 순정이였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나리꽃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에 잠기곤 했다.

(저 꽃을 그이의 묘소에 심었으면...)

하지만 그는 바재이지 않을수 없었다. 왕년의 일본군종군기자이며 한생 우익언론계의 주요직책들만 령임해온 자기의 명함장을 가지고는 세계에서 유일 무이하게 붉은기를 휘날리고있는 조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살것 같지 못해서였다. 그런데 행운이랄가, 그의 조심스러운 조국방문요청이 예상외로 쾌히 수락되었고 오늘은 아픈 상처를 남긴 이 소도시로 찾아오게 된 것이였다...

《신백화선생이지요?》 등뒤에서 웬 남자의 석잡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다보니 키가 후리후리한 웬 로인이 주름 많은 얼굴에 웃음을 짓고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신지요?》

《질 모르겠습니까?》

잘 생각나지 않았다.

《원, 이렇게도 몰라본다구야. 제 이 도시에서 만났던 일규올시다.》

《아니, 그럼?!》

안경을 벗어두고 한참이나 로인을 뜯어보던 너인의 얼굴은 놀라움과 경악으로 이그러졌다.
(최일규… 그 살인자… 나의 사랑의 원쑤!)
백화의 눈에서 섬광같은 것이 번뜩였다.

3

《여기에 올 줄 알았습니다. 백화선생, 우리가 선생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국가의 중요직책에서 사임하고 있는 일규는 얼마 전 한 해외동포녀인이 항일혁명투사 김준철의 묘소를 찾기 위해 조국을 방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규는 해당 일군들을 통해 그 해외동포녀인이 다름아닌 신백화이며 그가 지금 김준철이 희생된 도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급히 따라온 것이었다.

백화는 그를 외면한 채 낮으나 매몰스럽게 쏘아 붙였다.

《우린 반가운 인사를 나눌만 한 사이가 못되는 것 같은데요?》

《허, 이거 애인의 전우를 만나게 달갑지 않은 모양입니다.》

《전우라고요? 놀랍군요, 이 도시에까지 쫓아와서 그이를 살해한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하지만 일규는 그쯤한 공격에는 이미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듯 여유작작한 태도로 계속했다.

《허허, 내 선생이 이렇게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 신문들에 난 글을 보니 왜놈들이 일을 그렇게 꾸며놓았더군요. 증인으로 나선 선생의 사진까지 받쳐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기가 막혔다.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첩면피할 수 있단 말인가.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이 늘 외운 다던 성구가 떠올랐다.

《정치란 곧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도 지금 일종의 정치를 하고 있는가?

백화는 로골적인 혐오감이 서린 말투로 그를 타매하기 시작했다.

《정말 너무하군요. 아직도 습박폭질을 하자는 거나요? 그날 난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준철씨를 살해하고 도망치는 당신을 말이에요. 그때 당신들에겐 사랑이 죽을죄로 되는가요? 당신들은 그이를 싸죽이고 속이 시원했겠지만 난 그이를 잃고 한생 눈물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령혼파의 상봉마저 가로막자는 거예요?》

《그만하시오.》

엄청나게 큰 그의 목소리에 피토하는 두견의 부리같은 백화의 입이 일순 얼어붙었다. 마주선 두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쳐 불꽃방전이라도 일으킬 것 같았다.

한참만에야 자신을 다잡은 일규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후들거리는 손으로 들고온 서류가방에서 무슨 문서 같은 것을 꺼내어 표현한 자세로 서있는 그에게 내밀었다.

《이번이 아니면 선생의 오해를 풀어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품놓구 이걸 찾아왔습니다. 자, 보시우.》

《내가 왜 이걸 봐야 하는가요?》

《그럴 의무가 있기 때문이요.》

《의무라구요?》

《그렇소.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가 받아안은 사랑의 크기를 바로 알아야 할 의무가 있소.》

백화는 일규의 말에 담겨진 그 어떤 무게에 저도 모르게 위압되어 내키지 않는 손을 내밀었다. 그가 문서를 받아들자 일규는 가슴이 답답한 듯 양복단추를 훌훌 벗겼다.

백화는 문서들을 펼쳐보았다. 종이가 누렇게 바랜 것으로 보아 펴 오래전의 문서 같았다. 문서는 일본어로 씌어져 있었다.

《극비 공비 김준철체포작전에 관한 건》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백화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해쓱해졌다.

《작전 진행내용— 소화××년. 조선주둔군 제19사단 정보과장 다께이는 전향자 고필목의 진술에 근거하여 망양서점 주인 김준철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고 그가 조선인민혁명군 지하공작당의 일책임을 확인한 후 본인과 그의 연락원에 대한 체포작전을 단행하였다. 작전수행시 연락원은 도주하고 김준철은 총격전끝에 자충하였다.》

이후처리— 사회적여론환기를 위하여 이 사건을 공산비적이 파견한 자객에 의한 도주자처단사건으로 위장하고 보도기사를 모든 신문들에 게재하게 하였다. 사건에 신빙성을 기하기 위하여 김준철의 애인인 〈요미우리신봉〉 조선인특파원 신백화를 증인으로 리용하였으므로 이 녀자에 대한 금후 관찰을 요함.》

《?!》

하늘땅이 서로 뒤바뀌는 듯 한감을 느끼며 백화는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수십년 세월 자기의 머리속에 부인할 수 없는 진실로 정립되었던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았다.

(이것이 과연 사실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그렇다면 난 일생 허위와 기만에 우롱당하며 살아온 것이 아닌가?)

백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문서는…》

《그건 조국해방작전과정에 우리가 여기 라남 19사단지휘부를 점령할 당시 압수한 문건입니다. 그날 준철동문 선생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선생이 나타나기 전에 적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준철동무에겐 사령부에 보고해야 할 자료가 있었습니다. 내가 철수하자고 하니 자기는 남아서 적들의 주의를 끌겠으니 날더러 빨리 자료

를 가지고 떠나라고 등을 떠밀지 않겠습니까. 준철 동문 나를 뒤문으로 빼돌리고 적들과 총격전을 벌리다가 그만... 것처럼 고대하던 선생과의 상봉을 눈앞에 두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공작상 필요로 이 도시에 내려왔었다는건가요?》

《단지 공작상 필요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준철동무가 선생을 만나자고 한건 사령관동지께서 돌려주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규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소리에 백화는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예?!》

일규는 백화가 떠나간 후 유격구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종파사대주의자들 때문에 빚어진 쏘베트로선의 좌경적후과를 가시기 위해 벌어진 일들과 준철이와 백화의 관계를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기증》이라는 명목으로 약혼반지까지 내놓게 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 금반지를 비롯한 모든 헌납품들을 다 돌려주도록 한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어놓았다.

그는 준철의 멍든 마음을 풀어주던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그날 난 준철동무앞에서 청춘남녀들의 사랑을 혁명투쟁에 백해무익한것으로 생각한 자신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보았습니다. 자기 애인을 뜨겁게 사랑할줄 모르는 인간이 조국과 인민을 어떻게 열렬히 사랑할수 있겠습니까. 그날 그냥 흐느껴울던 준철동무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백화는 온몸이 귀가 된듯싶었다. 소나무숲속에서 우짖는 새들의 지저귀소리며 멀지 않은 곳에서 지출대는 시내물소리도 그에겐 전혀 들리지 않았다. 오직 일규의 석침한 목소리만이 더갈라진 땅에 흘러드는 생명수마냥 그의 마음을 축축히 적시며 스며들었다.

《그후 사령관동지께선 선생을 꼭 찾아 데려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작원들이 떠날 때마다 선생의 행처를 알아볼때 대한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도시에서 선생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지요.》

생각났다. 뜻밖에 만난 일규를 팽대하여 보냈던 그때 일이 가슴을 아릿하게 훑어내리며 떠올랐다.

《제가 그때 정말 너무했습니다.》

일규는 지나간 일인데 뭘 그러는가고 대범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선생으로서야 그렇게 나올수 있었지요. 그때 내가 가지고간 선생의 소식과 신문을 본 준철동무는 며칠동안 식사도 제대로 안하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제가 이젠 어쩔셈인가고 물으니 그는 일본군중군기자까지 되어 혁명을 비방하는 그런 너자를 어떻게 사랑하겠는가고 하더군요. 뭐 자기는 혁명을 사랑하지 않는 처녀를 사랑할수 없답니다. 허허허... 그러다가 눈이 속 나오도록 비판을

받았지요.》

그때 준철은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그의 귀전에서 동지들의 목소리가 떨어질줄 몰랐다.

동무는 마치 혁명을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것처럼 생각하고있는데 아니다, 혁명은 그자체가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으로 혁명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 사랑의 힘으로 인간을 멸시하고 증오하는 제국주의와 싸우고있다, 그런데 동무가 한 인간을 그렇게 배척할수 있는가, 그것도 자기를 것처럼 사랑하는 처녀를... 생각해보라, 그가 마음까지 왜놈들 편이라면 유격대원인 동무를 아직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을것이다, 거리에서 만난 일규동무를 살펴보내지도 않았을것이고, 지금까지 믿고 기다려온 애인한테서 자기가 이렇게 배반당한걸 알면 그 처녀는 아마 가슴을 허비며 울것이다, 명심하라,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혁명을 하기 위해 사랑하는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혁명을 한다!

《그날 밤 준철동무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도 머리를 들수가 없었지요. 나도 한때 준철동무와 선생의 사랑을 마깝지 않게 여겼었으니까요. 허허.》

백화는 달아오른 불뿔에 가슴을 지지우는것만 같았다.

《혁명을 하기 위해 사랑하는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혁명을 한다!》

이런 명구를 과연 어느 책갈피에서 본적이 있었던가. 그 어느 위인의 전기에서 이런 뜨거운 말을 읽은적 있었던가. 그는 손수건을 꺼내들었다. 자기도 모르게 두볼로 흐르기 시작한 눈물을 그제야 의식한것이다.

일규는 수령님께서 준철의 사랑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그에게 지하공작임무를 주어 애인이 있는 라남에 파견하시었다는것과 준철에게 애인을 뜨거운 사랑으로 이끌어주어 인생의 먼길도, 혁명의 먼길도 함께 가는 전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신데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렇게 돼서 우린 선생을 찾아 이 도시에 내려왔지요. 그때 준철동무의 품엔 다시 찾은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준철동문 희생되기 전에 그 반지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붉은 천에 싸것을 꺼내어 훌쩍거리고있는 백화에게 내밀었다.

《이젠 선생이 건사하시우.》

백화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펼쳐보니 60여년전 잊지 못할 그 여름밤에 준철이 끼워주던 그 금반지였다. 이 반지를 자기에게 다시 끼워주기 위해 김일성주석님께서 것처럼 마음을 쓰시였고 준철이 목숨까지 바쳤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자꾸만 솟구쳐올랐다. 이런 고마운분들을 비방하는 일에만생을 바쳐온 자신이 끝없이 저주로웠다.

그는 반지를 붉은 천에 도로 차곡차곡 싸서 일규

앞으로 밀어놓으며 이렇게 떠들거렸다.

《제가 이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전 이 반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 녀잡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참, 준철동무의 묘는 여기에 없습니다.》

《아니, 그럼?》

《저와 함께 갑시다.》

의문어린 눈길로 일규를 바라보며 백화는 그의 뒤를 따랐다.

저 멀리 바다우에 노을이 비졌다. 조국의 노을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아름다웠다.

4

최일규를 만나고온 다음부터 백화는 행여나 그에게서 준철의 묘에 가보자는 기별이 오지 않았나 해서 방문일정에 있는 명승지참관도 가지 않고 호텔에만 불박혀있었다. 어제도 저녁늦게까지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다. 래일이면 방문일정도 끝나게 된다. 그는 아침식사를 가져온 안내원에게 비행기표를 부탁하였다.

(여기까지 왔다가 그의 묘소도 찾아보지 못하고 가게 되다니…)

그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창문가에 놓여있는 나리꽃화분으로 옮겨갔다. 준철의 묘소에 심으려고 타향멀리에서 애써 가꾸어 가지고온 자기의 냇이었다. 기후가 안성맞춤해서인지 며칠 안되는 조국방문기간에 꽃잎을 활짝 펼쳤다. 이제 저 나리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똑똑똑.》

출입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일규가 서있었다.

《기다렸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백화선생, 당중앙위원회 부부장동지가 오셨습니다.》

그가 한열으로 비켜서자 뒤에 서있던 한사람이 인상좋은 얼굴로 들어서며 인사를 했다.

《선생의 조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자,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백화는 어안이 빙빙해졌다.

《가다니요?! 어디로 말입니까?》

《조국에 왔다가 준철동무도 만나보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까?》

《예?!》

핑—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부부장이라는 사람의 두손을 와락 부여잡았으나 목구멍이 콕 메여 인사말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정말… 고맙습… 흑!》

《인사는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 장군님께 올려야 합니다.》

백화는 숙였던 고개를 쳐들었다.

일규가 사연을 설명했다.

《사실 우린 선생의 조국방문목적이 준철동무의

묘소를 찾아보기 위해서라는걸 알면서도 선뜻 결심을 못하고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생이야 한평생 우리를 비방해오지 않았습니까. 제국주의자들의 어용나팔수로 지금껏 복무해온 이런 사람이 과연 혁명렬사릉에 오를 자격이 있는가, 더우기는 준철동무가 좋아하겠는가 뭐 이러부한 문제들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선생문제를 놓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백화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서있었다.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론의가 벌여졌는지 짐작이 갔다. 그러나 부부장의 이야기를 듣고난 백화는 마음속 걱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아, 조국. 고마운 조국에서는 죄많은 나를 문제시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리해하고 좀 늦은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들의 상봉을 마련해주자고 이렇게 마음쓰고있는것이 아닌가. 그것만도 고마운데 그날의 금반지를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반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미 세상에 없는 우리의 혁명동지를 한생토록 변함없이 사랑해온 그런 녀성은 당당한 혁명가의안해라고, 남편을 만나러 갈 때 꼭 그날의 금반지를 끼고가라고 내세워주니 이런 고마운품을 내 너무나도 멀리 돌아왔구나.

백화는 울고있었다. 한손으로 입을 막고 쏟아지는 오열을 가까스로 참으며 어깨를 떨고있었다. 부부장은 자그마한 함을 열었다. 함안에 있는 금반지가 뚜렷이 안겨왔다. 세월이 흘러어도 여전히 그 빛을 잃지 않고있는 반지였다.

《어서 받으십시오.》

백화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아들었다. 잊지 못할 복산공원의 정자나무아래서 이 반지를 받을 때와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그러한 무게가 실리어왔다. 뜨거운 정과 열, 사랑의 운기가 온몸에 흘러들었다. 그는 참고참았던 오열을 터치고야말았다.

일규는 주저앉으려는 백화를 일으켜세웠다.

《자, 어서 준철동무를 만나러 가십시오.》

백화는 그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랐다.

일규가 나리꽃화분을 차에 실었다.

승용차는 시내를 누비며 한동안 달렸다. 대성산 혁명렬사릉에 도착하여 백화는 준철의 반신상앞으로 안내되었다.

흰칠한 이마에 부리부리한 눈, 건듯 들린 코날이며 억세계 모가 난 얼굴륵곽… 신통히도 총각시절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나리꽃화분을 준철의 반신상앞에 정히 놓았다. 그리고는 오열을 터뜨렸다.

《제가 왔어요.… 저를 것처럼 사랑해준 당신의 령전에 나리꽃화분 하나밖엔 못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도 조국에선 나를 당신의 안해라고, 혁명가의 안해라고 불러주고 이 상봉을 마련해주었어요.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백화의 눈물이 반신상을 받치고 선 대둘에 떨어졌다.

이어 그는 준철의 반신상걸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그것은 약혼사진이었고 결혼사진이었다.

주작봉을 내린 그는 만수대언덕을 찾았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에 안고온 꽃다발을 정히 놓고 허리굽혀 큰절을 올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손들어 가리키시는 저 하늘끝에서도 눈부신 해빛이 쏟아져내렸다.

그는 명상에 잠겨버렸다.

(아! 저 해빛의 따스함, 이 대지의 청신함, 이 대지의 부드러움, 이것이 있어 이 땅의 꽃들은 저 리도 아름답고 싱싱한것이 아닐가. 여기는 분명 천당이다, 사랑의 천당이다.)

만수대언덕을 내리면서 백화는 부부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죽어도 이 땅에 묻혀 한 그루 나리꽃으로 피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국앞에 빛을 진 녀자입니다. 그 빛을 갈아야 합니다.》

×

신백화와와 기자회견이 있게 될 캐나다타임스사의 면담실은 벌써부터 특종뉴스에 주린 국내외의 기자들로 붐비고있었다.

《백화선생이 나오십니다.》

누군가 웨치는 소리에 기자들이 출입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 그의 얼굴에 촬영기와 사진기를 들이대며 소란을 피웠다.

《선생님, 북조선을 방문한 인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백화는 쏟아지는 질문의 소나기를 말없이 헤치며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잠시후 장내는 정돈되었다. 드디어 그의 발언이 시작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랑의 정치, 인덕 정치를 자기의 정치리념으로 하고있는 유일한 사회주의국가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직접 체험한 사실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두를 댈 그는 연단우에 자그마한 함을 꺼내놓고 그안에서 붉은천에 싸것을 꺼내들었다.

《기자여러분, 이것은 60여년만에 찾은 저의 약혼반지입니다.》

물뿌린듯 조용하던 장내가 갑자기 술렁거렸다. 백화는 자기와 준철의 애정사와 거기에 깃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버이사람에 대하여 감동깊이 이야기했다.

장내는 감동과 찬탄으로 술렁거렸다. 이 후더운 회오리에 신백화자신도 못내 흥분되었다. 그는 장내를 둘러보며 가슴속에서 뿜어넘치는 격정을 긍지 높은 어조로 소리높이 웨쳤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정치리념으로 하고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내가 본 나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실상입니다!》

열렬한 박수갈채가 장내를 들었다놓았다. 기자들이 더 좋은 촬영각도와 구도를 잡느라고 붐비며 돌아갔다.

밝게 웃는 신백화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조선인민군 군관)